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다섯 남자의 오!머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생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0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20 뉴스와이드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걸작선 〈매리는 외박중〉(재)	00 비타민(재)		30 물을 찾아 떠나는 오지여행(재)
2	30 달자의 봄(재)	00 KBS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VJ특공대(재)	10 중계방송 국회 긴급현안 질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40 이언경의 직언직설	00 아름다운 사람들(재) 10 세상사는 이야기(재)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재)		00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4	50 김광현의 탕탕평평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을 잇는 담쟁이〉	00 엘리먼트 헌터(재) 30 TV 유치원(재)	00 어린이 동물구조대 30 아웅다웅 동화나라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둥실 뭉게공항(재)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성장다큐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고향을 부탁해	05 세상발견 유레카
7	10 故 박상규 추모특집 그때 그 사람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20 박종진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의뢰인 K	50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25 컬투의 베란다쇼 55 수목미니시리즈 〈남자가 사랑할 때〉	
10		00 과학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드라마 〈아이리스2〉		00 드라마 스페셜 〈내 연애의 모든것〉
11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라인 40 현장르포 동행	20 해피 투게더	15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20 자기야
12	10 그 여자 그 남자(재) ①:4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30 KBS 뉴스 40 콘서트 필2 ①:30 KBS 걸작다큐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24 55 스포츠 다이어리 ①:10 MBC 다큐프라임	40 SBS 토론 공감

EBS

05:00 월드 뉴스 리뷰
05:40 영자신문읽기
06:00 건강한 아침
06:10 한국기행
06:30 미래 직업, 뜨는 직업
07:00 곤
07:15 바두와 친구들
07:30 마야의 모험
07:45 부릉! 부릉! 부루미즈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20 시계마을 티키톡
08:35 꼬마버스 타요
08:50 춤추는 곰 콩야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뚜바뚜바 눈보리
09:30 피들리팜
09:40 깨미
09:50 지구를 지켜라
10: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부모 〈부부싸움의 기술 1〉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다큐프라임 〈우랄 알타이를 가다〉
13:05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4:00 지식채널e
14:05 버블버블 언어친구들
14:30 몬스터 수학나라
15:00 제로니모의 모험
15:30 바두와 친구들
15:45 마야의 모험
16:00 딩동댕 유치원 1~2(재)
16:20 피들리팜
16:30 꼬마버스 타요(재)
16:45 춤추는 곰 콩야(재)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17:10 시계마을 티키톡(재)
17:25 부릉! 부릉! 부루미즈(재)
17: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
18:30 곤
18:45 정글북
19:00 EBS 뉴스
19:25 지식채널e
19:30 지식발굴 프로젝트
20:2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0:50 세계테마기행 〈광야에서 만난 신기루, 요르단 4부 개방과 공존의 역사를 찾아서〉
21:30 한국기행 〈진도〉
21:50 EBS 다큐프라임 〈피오르와 리아스〉
22:45 극한직업
23:15 EBS 인문학 특강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00:50 내신 6감 〈수학(하)〉
01:40 포스 〈문학 I〉
02:30 〃 〈문학 II〉
03:20 〃 〈적분과 통계〉
04:10 〃 〈기하와 벡터〉
05:00 〃 〈수학 II〉
05:50 탐스런 〈물리 I〉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화학 I〉
09:10 〃 〈생명과학 I〉
10:00 〃 〈지구과학 I〉
10:50 〃 〈물리 II〉
11:40 〃 〈화학 II〉
12:3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3:00 탐스런 〈생명과학 II〉
14:00 〃 〈지구과학 II〉
15:00 기출플러스 〈화법·작문·문법〉
16:00 〃 〈수학 I〉
17:00 〃 〈영어-듣기편〉
18:00 EBS 수능특강 〈수학 I A형〉
19:00 〃 〈수학 I B형〉
20:00 〃 〈미적분과 통계기본〉
21:00 〃 〈수학 II〉
22:00 〃 〈생명과학 I〉
23:0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23:55 배움너머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7:30 EBSe 생활영어
08:00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08:30 제과 제빵 기능사 시험대비 강좌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①(하)〉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한문〉
11:10 TV중학 〈도덕①〉
11:50 TV중학 2학년 〈수학2-1〉
12:30 〃 〈과학2〉
13:10 TV중학 3학년 〈도덕3〉
13:50 뻔뻔한영어
14:30 한글이 아호
14:50 뽕뽕이랑 남남
15:10 발명이 팡팡!
15:20 초등 중간학업성취도 평가 대비특강 〈과학 3-1〉
15:50 〃 〈과학 4-1〉
16:20 〃 〈과학 5-1〉
16:40 〃 〈과학 6-1〉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18:0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댕댕〉
18:40 어린이 역사드라마 〈점프〉
19:20 숲 속 친구 파파룰라
19:40 춤추는 곰 콩야
20:00 왕초보 중학영어
20:4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1:20 등업 신공 〈사회①〉
22:40 TV중학 3학년 〈수학3-1〉
23:20 EBS 드라마 스페셜 〈겨울아이〉

"김혜수 회식 거부 통쾌해" 직장인 대리만족

KBS '직장의 신' 방송 2회만에 화제 … '슈퍼갑' 계약직의 판타지 구현

"내가 왜 너희 같은 애들을 '언니'라고 부르는 줄 알아? 식당에 가면 '이모', '언니' 하고 부르듯 너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지."

식품회사 Y장에서 엘리트 대접을 받는 장규직(오지호 분) 팀장은 3개월짜리 계약직 직원 정주리(정유미)의 얼굴에 이런 폭언을 던진다. '어디 감히 계약직이 신분을 모르고 날뛰냐'는 요지다.

KBS 2TV 월화극 '직장의 신'이 직장 문화를 비틀어 풍자하며 방송 2회 만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기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는 현실에는 없는 '슈퍼갑' 계약직의 판타지를 구현한다.

프로젝트마다 높은 임금을 받고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막힌 변기를 뚫고 정수기 물을 갈며 분리수거를 하고 이면지를 모으는 등 온갖 잡일을 하는 계약직원 미스김(김혜수)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 계약직원은 못하는 일이 없고,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낸다. 그래서 매사 당당하다. 무엇보다 모든 비정규직의 희망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꿈도 없다. 아니, 전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업무시간 내에 맡은 일만 해놓고 퇴근하면 된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열악한 계약직의 임금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냐는 것. 드라마는 미스김이 업무 시간 외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설정해놓았다. 모두가 미스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스김은 시시때때로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

'직장의 신'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사이를 정확하게 가르는 동시에 정규직원 사이에서도 능력 정도에 따른 신분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태생적인 갈등구조를 선명하게 그려놓았다. 비록 창작극은 아니지만 '직장의 신'은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현실과 어떤 직장으로 배경을 옮겨놓아도 공감이 되는 보편적인 직장 문화의 단면을 풍자하며 여운을 남긴다.

물론 스스로 계약직의 삶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슈퍼갑 계약직 미스김의 존재는 판타지지만 그가 기존 직장 문화의 구태의연한 모습과 병폐를 통쾌하게 발로 걷어차는 모습은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미스김은 "저는 직장을 다니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회식은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단칼에 자르고 표표히 퇴근한다.

"우리는 하는 일이 너무 바빠 계약직을 채용해 잡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규직과 "그러는 너희는 잡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우리를 채용하냐"고 맞서는 미스김은 오늘도 이를 꽉 깨물고 출근하는 수많은 샐러리맨들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준다. 김혜수를 필두로 오지호, 이희준, 정유미 등의 연기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것도 드라마에 대한 몰입을 돕는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음 2월 24일 庚子)

子 36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48년생 이익만을 좇으려는 이가 보인다. 60년생 경위가 분명한 판단이어야 한다. 72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하리라. 84년생 성의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82, 59

丑 37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겠다. 49년생 주관적 판단을 하면 아니 되느니라. 61년생 영향력을 갖게 된다. 73년생 완벽한 결과만을 기대하지 말자. 85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81

寅 38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다. 50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62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다. 74년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61, 76

卯 39년생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51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63년생 착각은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75년생 참된 마음과 투명한 언행이 복에 이르게 한다. **행운의 숫자** : 67, 01

辰 40년생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하느니라. 52년생 하나가 성사되면 연쇄적인 진전이 있겠다. 64년생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으로 전개되리라. 76년생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0, 37

巳 41년생 자연히 따르게 되리라. 53년생 가시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65년생 정신적인 여유를 가진다면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이다. 77년생 지나치다면 병폐가 생기게 마련이니라. **행운의 숫자** : 08, 83

午 42년생 생산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54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66년생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다. 78년생 기본적인 것이 튼튼해야 전망이 밝아진다. **행운의 숫자** : 87, 55

未 43년생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니라. 55년생 성심으로써 베푼다면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67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79년생 진행의 추이를 보고 진퇴를 결정 하자. **행운의 숫자** : 89, 12

申 44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68년생 매끄럽지 못한다면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80년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29

酉 45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57년생 개성의 창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9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81년생 가급적 관용의 덕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6, 21

戌 46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58년생 설득력을 갖기 위한 제반 자료가 필요한 때다. 70년생 주변의 문제가 자신과 관련 될 수다. 82년생 교언영색하는 이를 경계하자. **행운의 숫자** : 25, 42

亥 47년생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59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 71년생 상대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83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5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How long will you be gone?

얼마나 있다 올건데?

A : Could I borrow your car?
B : What's wrong with yours?
A : It's got a flat tire.
B : How long will you be gone?
A : Just for an hour or so.
B : OK. Go right ahead. Drive carefully.
A : Don't worry.

A : 차 좀 빌려 쓸 수 있을까?
B : 자네 차는 어떻게 하고?
A : 펑크가 났어.
B : 얼마나 있다 올건데?
A : 딱 한 시간 정도.
B : 좋아 그렇게 해. 운전 조심하고.
A : 걱정마.

* 나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How long has he been gone?

〈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한자이야기

汗牛充棟(한우충동)

땀 한, 소 우, 채울 충, 마룻대 동

한우충동(汗牛充棟)은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집에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게 된다는 뜻으로, 책이 많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중국 당(唐)나라의 문장가 유종원(柳宗元)은 육문통선생묘표(陸文通先生墓表)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은 지 1500년이 되었고 '춘추전'을 지은 사람이 다섯 사람, 온갖 주석을 한 학자들이 1000명에 달한다. 그들이 지은 책을 집에 두면 대들보까지 차고 밖으로 내보내면 소와 말이 땀을 낸다(其爲書處則充棟宇 出則汗牛馬)."

여기서 말한 충동우(充棟宇) 한우마(汗牛馬)가 변하여 한우충동(汗牛充棟)이 되었다.

[출전] : 유종원(柳宗元)의 육문통선생묘표(陸文通先生墓表)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쭝구워

大夫 dài fu

의사를 왜 '大夫'라 칭할까?

'大夫'는 옛날 춘추전국시기 제후국에서 왕 밑의 봉토를 지급받는 세습직 벼슬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후 진한(秦漢)을 거쳐 당송(唐宋)대까지도 고관직에 사용된 칭호입니다. 현재는 의사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 유래는 중국 '宋'대의 관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내의원처럼 宋대엔 한림의관원(翰林医官院)에서 황제와 황실의 의료행위를 관장했다고 합니다. 徽宗때 관직을 재편하며 한림의관원 관직을 일곱 등급 스물 두 종으로 나누는데, 그 호칭이 '和安大夫, 成和大夫, 成全大夫' 등 '○○大夫'라는 칭호를 갖게 되어 자연스레 '大夫'가 의사를 나타내는 말로 굳어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쓰이게 됩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蒸(む)し暑(あつ)くなります。

무더워 집니다

A : この頃(ごろ) 雨(あめ)の 日(ひ)が 多(おお)いですね。
B : 昨日(きのう)も 今日(きょう)も 雨(あめ)ですね。
A : 明日(あした)から 雨(あめ)が 止(や)む そうです。
B : 蒸(む)し暑(あつ)くなりますね。

A : 요즘 비오는 날이 많군요.
B : 어제도 오늘도 비군요.
A : 내일부터 비가 그친데요.
B : 무더워 지겠군요.

この頃(ごろ)	요즘	多(おお)い	많다
少(すく)ない	적다	蒸(む)し暑(あつ)い	무덥다
雨(あめ)が止(や)む	비가 그치다	暑(あつ)い	덥다
雨(あめ)が降(ふ)る	비가 내리다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